

당내나 제3지대나…安-孫 개혁신대 재점화

<철수> <학규>

안 “대표로 모시려 한다”
손 “좀 더 큰 그림 필요”
개헌 등 놓고 우호적 관계
조기대선 국면 성사 관심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최근 ‘러브콜’을 주고받는 등 우호적 관계를 지속하고 있어 조기대선 국면에서 연대가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안 전 대표 측은 당의 외연 확장 등을 명분으로 손 전 대표에 입당과 함께 내달 15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출마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손 전 대표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보다는 안 전 대표가 국민의당 울타리를 벗어나 제3지대의 물꼬를 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손 전 대표에 당 대표 출마를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거기에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많은 분을 만나 넓고 다양한 얘기를 나누는 중”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 측에서는 “외연 확장 등 차원에서 손 고문 영입에 대해 대다수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다”며 “전당대회를 계기로 손 고문을 모시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도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개헌론을 고리로 안 전 대표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전날 부산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개인의 지지세는 많이 빠졌지만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희망과 요구를 담은 ‘안철수 현상’은

아직 유효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13일에는 손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행사에 안 전 대표가 참석해 축하했고, 이달 초에는 두 사람이 단독 회동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손 전 대표 측은 국민의당 입당에는 손사래를 치고 있다. 손 고문 측 관계자는 “공식 제안을 받은 바도 없고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며 “개인 의견이지만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려야 하지 않느냐”며 거리를 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양측의 생각이 밀그림이 다르다는 점에서 손 전 대표의 국민

의당 입당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로 손 전 대표는 개헌을 토대로 ‘제7공화국’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지만, 안 전 대표는 개헌에 대해 “논의는 가능하다”면서도 선거구제 개편 등 단계적 접근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손 전 대표가 최근 결성 계획을 밝힌 ‘국민주권 개혁회’를 통해 창당 수순을 밟고 외부에서 독자 세력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국민의당 내부에서 대권 후보로는 안 전 대표가, 당권 후보로는 박지원 원내대표

등 각각 강력한 경쟁자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입당보다는 제3지대에서의 동력을 키워가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읽힌다.

당권 도전에 나서는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손 전 대표는 당 대표를 안 할 것”이라고 잘라 말해 불협화음을 보이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안 전 대표와 손 전 대표의 조기 대선 정국에서 ‘순풍치한’의 관계로 볼 수 있다”며 “대선 과정에서 연대는 두 사람에게 풀어내야할 절대적 명제”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 정세균 국회의장의 입장을 지켜보고 있다. 정 의장은 황교안 권한대행과 인사 없이 바로 자리로 향했다. /연합뉴스

황교안 “대선출마 계획 전혀 없다”

국회 출석…“경제·일자리 위해 마사회장 인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대통령 출마를 계획하거나 고려하고 있는가”고 묻자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 진박(진박근혜)계 일각에선 황 권한대행을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하고 있어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불요불급한 인사권 행사를 강행하고 황제급 의전을 요구하면서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부득이한 인사를 단행해 그 공백들을 메워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경제 살리는 데,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기관장) 공백을 메우

는 일들은 부득이 해야 하지 않겠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최근 한국마사회장 인사를 단행한 바 있어, 마사회장 인사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셈이다. 대통령 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한 황교안 권한대행은 정작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대한 책임을 묻는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의 질문에는 “AI는 농림식품부 관할”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반목을 사기도 했다.

또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관세 대모를 지원하고 미르, K스프츠재단에 불법 모금을 주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황교안 대행은 “대기업 전반이 벌이는 공익 활동, 기부 활동 전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호남특위 발족

양향자 수석부위원장에

위원 대부분 친문 일색

민주당이 지난 19일 뒤늦게 당내 호남특별위원회 출범시킨 것과 관련, 조기 대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 공략을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호남 특위 설치는 지난 8·29전당대회 당시 추미애 대표가 내걸었던 공약이었지만 촛불 및 탄핵 정국에 밀려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발족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결국, 호남 특위는 예산국회 이전 출범이 무산된 끝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뤄진 뒤에야 지각 발족하게 됐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통과된 만큼 호남 특위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 차원에서 호남 공약 및 정책 발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호남 특위는 추미애 대표가 위원장을, 전해철·양향자·김춘진 최고위원

과 윤호중 정책위의장, 김현미·백재현·홍영표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는다.

부위원장은 김태년·이개호·이춘석·홍익표 의원 등이 임명됐고 위원으로는 기동민·안호영·진선미·최운열 의원과 김민석 특보단장, 김성주·김영록·김운덕·박해자·신정훈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 김재주 광양·곡성·구례 지역위원장, 박희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김철주 전 보성군의회 의장이 호남특위에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호남 특위에 소위 전문(전문재인) 인사가 많이 포진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공략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 특위는 호남에 대한 진정성 마련 차원에서 발족된 것”이라며 “조기 대선 국면이 형성된 만큼, 대선 공약과 정책 등에 호남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호남 특위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비박, 분당의 길…오늘 탈당 결의

‘유승민 비대위원장’ 무산

친박계 외부인사 영입 나서

새누리당이 20일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놓고 정면대결을 벌인 끝에 분당의 길을 선택했다.

주류 친박(친박근혜)계와 비주류 비박(비박근혜)계는 이날 비대위원장에 외부 인사 영입과 유승민 의원 추대를 각각 주장하면서 팽팽하게 대립했다.

애초 친박계는 비박계에 비대위원장을 추천하라고 했고 비주류는 지난 19일 회동을 통해 유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추천했다. 하지만, 친박계는 ‘유승민 카드’가 나오자 입장을 바꿨다. 친박계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유승민 비대위원장이 탄생할 경우 주류 쪽에서 사생결단이 나는 반발이 있을 것이고, 내분과 내홍이 심해져 당이 붕괴박산과 분당의 기로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유승민 카드’를 거부한 것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양측은 정면 충돌하며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대 계파는 각자도생을 위한 ‘홀로서기’에 나섰다.

친박계는 이날 비박계의 비상시국위원회에 대해 출마시킨 ‘혁신과통합보수연합’을 일주일 만에 해체하고 계파

핵심중진의 2선 후퇴를 선언하는 동시에 외부 비대위원장 영입을 제안하는 등 자체적인 당 재건 로드맵에 착수했다.

특히 비대위원장으로 외부 인사 영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친박계 내부에서는 비대위원장 후보로 김황식 전 국무총리,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이회창 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총재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손 전 대표 측은 “예의가 아니다”며 거론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했다.

비박계는 ‘유승민 카드’가 받아들여질 조짐이 없자 이번 주중으로 집단 탈당 여부를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김무성 전 대표 등 비박계 의원 14명은 이날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황영철 의원이 전했다.

황 의원은 브리핑에서 “더는 친박계의 불분명한 시간 끌기로 혼란이 계속돼선 안 된다”면서 “탈당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에 적극적으로 돌입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탈당시기와 규모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20명 이상은 분명히 될 것이고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박계는 21일 유승민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동을 열어 탈당 결의를 시

도해볼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커피숍 임대

북구 중흥동 전대 정문 / 후문 2분

모아 A.P.T 후문 / 대단위 아파트

◆ 13평 / 코너 자리

시설 완비 / 즉시입주 가능 / 단골 손님 다량 보유

★ 보 2천 월 60만

첨단 1층 식당 임대(120평)

첨단 메가박스 / 첨단산업단지 1분 / 삼성전자 정문 앞

◆ 한우식당 / 장어집 강력추천 !!

주차 60대 완비 / 즉시 입주 가능

★ 보 1억 - 월 300만

상무지구 오피스가 매매 6층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19평)

보 500만 월 40만 (용 2천4백만)

▶ 시세 9천만
매매 6천9백만

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 투자

■ 전남 영광 전원주택 매매

토 151평 건 423평

광주에서 40분, 전원주택 최고 위치

▶매가 8천만

■ 서구 쌍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2층(11평) 윤천역 1분출구에서 3분거리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1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열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용 1천6백만)

▶매가 8천 500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열

보증금 500만, 월 42만(용 2천4백만)

▶매가 7천 500만

■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 아파트

(15평) 12층 -전망 좋음, 주변 골프장,

아파트 밀집지역, 보증금 200만,

월 25만(전세 2천5백만 가능)

▶매가 3천 5백만

■ 서울 용산 청파 도시형

지하 (13평) 숙영여대 1분!

보증금 600만 월 60만

▶매가 1억6천 (용 5천)

법률 경매 (주) 대신경매

경매 추천 물건

■ 서구 금호동 (상가주택)

토 56평 건 75평

1층 (식당), 2층 (주택)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9천

■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광주역 1분 (코너자리)

층 롬 30개 (달방수익 1천만 예상)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6억6천

■ 동구 수기동 (2층 상가건물)

토 50평, 건 60평

금남로 4가, 5가 역 2분거리

4차선도로점 / 2층 상가건물

▶감정가 3억 → 최저가 3억

■ 장성군 북하면 (2층 식당)

토 280평 건 253평

식당 최고의 자리 / 백양사 관광지 위치

▶감정가 7억8천 → 최저가 2억8천

■ 나주시 석현동 (2층 식당)

토지 551평, 건 239평

동신대학교 3분 거리

식당 최고 위치 / 주차완비

▶감정가 5억5천 → 최저가 3억9천

첨단지구 8층상가건물 매매

* 토지 500평
건물 904평

감정가 55억
▶매 가 38억
용 자 27억

※ 본사건물
물류센타
연구시설
기숙사 적합

☎ 010-7384-7800
010-6670-9800

010-7384-7800

010-6670-9800